

'21. 1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

- ☐ 안녕하세요?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.
'21년 1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

☐ 먼저 보도자료 **1쪽**입니다.

- 2021년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**1,451만 2천명**으로 전년동월대비 **43만 2천명** 증가했습니다.
 - ▶ 가입자수 증감(천명): ('21.8)417→ ('9)390→ ('10)356→ ('11)334→ **(12)432**
-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
- 특히 '숙박음식', '운수업' 피보험자가 각각 20개월, 19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는 등 '공공행정'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하였습니다.
 - ▶ 공공행정 제외 가입자수 증감(천명): ('20.12)178, ('21.9)473→ ('10)467→ ('11)464→ **(12)460**

☐ 다음 **2쪽**입니다.

- 제조업은 수출과 더불어 투자, 생산이 증가하여 대부분 업종에서 개선되고 있으며
 - * 수출 증가율(% , 전년동월대비): ('20.12)12.4, ('21.9)16.9→ ('10)24.2→ ('11)32.0→ ('12)18.4
-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부분적인 일상회복(~12.17. 까지)과 소비심리 개선*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습니다.
 - * 소비자심리지수(100이상이면 개선): ('20.12)91 / ('21.9)104→ ('10)107→ ('11)108→ **(12)104**

- 일자리 상황이 점차 회복되면서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**6천 명** 감소한 **10만 2천명**이었으며,

-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**8,114억 원**으로 **4개월 연속 1조 원 미만**이 지급되었습니다.

☐ **3쪽의** 고용보험 장기 동향(12월 기준) 참고자료입니다.

- 매년 (상용 및 임시직)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수도 비례하여 증가 추세를 보인 측면도 있으나, 최근 피보험자 증가율은 취업자(상용 및 임시직)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의 성과라 하겠습니다.
-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'출판영상통신', '전문과학기술'이 크게 증가했으며 수출 호조로 '제조업' 역시 증가 전환했습니다.
-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및 보장성 강화('19.10.) 등 고용안전망 강화는 특히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및 구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고용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 - * 보장성강화 내용('19.10): ①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, ②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, ③일용근로자 수급요건 완화, ④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 완화

□ (상세설명) **7쪽** 다시 **업종별 동향** 설명드립니다.

- 제조업 가입자수는 **363만 3천명**으로
전년동월대비 **8만 7천명** 증가하여
'21년 1월 증가로 전환한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▶ 가입자수 증감(천명): ('21.8)86→ (9)89→ (10)89→ (11)92→ (12)87
- 제조업 중분류별 주요 업종의 특징을 보면
'식품'은 1인 가구 증가,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대용식
수요 증가로 피보험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
- **9쪽**, '전기장비' 제조업 증가는
대형사업장 분사로 인한 기저효과로 둔화되었지만
가정용 기기, 배터리 수요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글로벌 설비 투자 확대 및 반도체, 가전 등 수출에 힘입어
'기계장비', '전자통신', '금속가공', '1차금속(철강)' 등
다수 업종에서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조선업이 포함되어 있는 '기타운송장비'는
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으나
'21년 급증한 수주 실적(1744만CGT, '13년 이후)을 기반으로
선박 건조 및 부품제조업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.
- '자동차'는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
가동률이 회복되고 친환경차의 선전,
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사업장 신규 설립 등에 힘입어
증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

□ 다음으로, **11쪽** 서비스업 동향입니다.

-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**997만 9천명**으로
전년동월대비 **31만 3천명** 증가하였습니다.
▶ 가입자수 증감(천명): ('21.8)301→ (9)270→ (10)235→ (11)210→ (12)313
- 서비스업은 내수회복과 소비심리 개선,
온라인 서비스 확산(온라인쇼핑, 택배, 출판영상통신),
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(광고, 경영컨설팅) 확대 등 영향으로
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대표 대면서비스업종인 '숙박·음식업'과 '운송업' 역시
부분적 일상회복, 모임 증가,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
소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
- '공공행정'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
'20년 추경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상쇄되면서
감소폭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.

□ 서비스업 주요 중분류별 동향입니다.

- '도매업'은 건설업, 제조업 장비 및 상품 중개업 중심으로
'소매업'은 편의점, 온라인쇼핑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의 수요 확대로
'프로그래밍', '정보서비스', '영상·오디오기록물제작·배급' 등
온라인 기반 서비스업종에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

- 또한 의학, 약학, 자연과학 등의 ‘연구개발업’, 광고대행, 경영컨설팅 등의 ‘전문서비스업’, R&D, SOC 예산 지원 등의 영향을 받은 ‘건축기술엔지니어링’ 등에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
- 제조업, 건설업 등 경기 회복에 힘입어 ‘사업시설관리’는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

□ 17쪽, 구직급여 신청 및 수혜현황입니다.

- 12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 감소했고, 구직급여 수혜자는 52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1천명 감소했습니다.
-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및 수혜자수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시계열 단절 이후 다시 공식 발표된 지난 7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.
- 특히 ‘숙박음식업’, ‘건설업’, ‘제조업’ 등을 중심으로 신규신청자가 감소 지속하고 있습니다.
- 구직급여 지급액은 8,114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.2% 감소하였습니다.

< 종합평가 >

- 종합평가해보면, 고용보험 행정통계로 본 12월 노동시장 상황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지만 부분적 일상 회복 등의 영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 제조업과 더불어 정보통신, 전문과학, 도소매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나타냈습니다.
- 방역기준 강화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수출 호조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
- 이와 같은 고용회복세는 OECD 주요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른 것으로, 노동자와 기업, 정부가 합심하여 이뤄낸 성과입니다.
-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살펴보면, 가장 최근 통계인 11월* 취업자 수가 코로나 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99.98%까지 회복되었습니다.
- * 2020년 12월 고용통계는 1.12(수) 발표 예정
- OECD 주요국 중에 100% 회복을 달성한 국가는 호주, 캐나다 정도이고, 독일, 일본, 미국 등의 회복속도는 우리나라보다 느립니다.

<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성과 국제비교>

구 분	호주	캐나다	한국	독일	이탈리아	영국	일본	미국
‘20.2월 대비 ‘21.11월 고용회복률 (%) , 계절조정 취업자수 기준)	101.4	101.0	99.98	99.3	99.2 (10월)	98.3 (10월)	98.2	97.8
‘19년 대비 ‘20년 취업자 증감률(%)	-1.5	-5.2	-0.8	-1.3	-2.0	-0.3	-0.7	-6.2
‘19년 대비 ‘20년 실업률 상승폭(%p)	+1.3	+3.8	+0.2	+0.6	-0.8	+0.7	+0.4	+4.4

* 출처: 각국 통계청, OECD Stat(LFS by sex and age)

* 국가선정기준: OECD에서 GDP가 가장 큰 10개 국가 중 월별 고용통계가 발표되지 않는 프랑스, 스페인 제외

- 아울러, 이와 같은 고용회복이
정보통신업, 전문과학기술업 등 민간부문과
상용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
긍정적입니다.
- * 11월 취업자수 증감: 상용직+61.1만명, 임시직 +10.6만명, 일용직 -17.5만명
고용원有 자영업자: -0.4만명, 고용원無 자영업자: +4.2만명
무급가족종사자: -2.7만명
- 다만, 대면서비스업, 고용주, 일용직 노동자 등
취약분야 고용상황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,
우리 경제의 디지털·저탄소 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도
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
- 이에 정부는 일자리예산 31.1조원을 투입하여
완전한 고용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,
산업과 고용구조 전환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.
- 우선, 취약분야의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.
- 여행업·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
지원기간 연장을 1사분기 내에 적극 검토하고,
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
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.
-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
직접일자리 105.6만개는 1월 중에 60만명 이상을
신속하게 채용하겠습니다.

- 이와 함께 청년, 고령자, 여성 등
취약계층의 취업과 고용유지도 맞춤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.
- 14만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과
청년희망 ON 프로젝트*를 통해
청년의 민간일자리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.
- * KT, 삼성, LG, SK, 포스코, 현대차가 총 17.9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발표('22~'24)
- 올해 신설된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
현장에 조기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,
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도 내실화하겠습니다
- 올해 첫 시행되는 3+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
지원 비율 인상조치도 국민들께 적극 홍보하겠습니다.
- 다음으로,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,
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.
- 범 부처 협업을 통해 20개 신기술 분야에
1.6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6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고,
K-디지털 크레딧과 K-디지털 플랫폼을 확대하여
재직자의 디지털 역량 축적을 지원하겠습니다.
- 지난해 특고 14개 직종에 이어 올해 1월에는
플랫폼종사자 2개 직종*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였고,
하반기에는 다른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.
- * 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

- 시행 2년차를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
조기취업성공수당을 도입하고 취업알선기능을 확충하여
명실상부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잡도록
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.
- 아울러,
지난해 7월 발표된 「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」에 따라
마련한 5개 부처, 1조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,
- 산업부, 중기부와 긴밀하게 협업하여
노동자의 노동전환과 기업의 사업재편·전환을
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.

☐ 감사합니다.